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37호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황선우, 항저우AG '주목해야 할' 선수 뽑혀... 한국 선수 '유일'**

한종훈 머니S 기자

### 잇단 성범죄 뒤늦게 알고 '사후약방문' 대책, 부실 관리 '파문'

**'성범죄 선수 부실관리' 광주 복구 검토부 행정사무조사(종합)**

변재훈 뉴시스 기자

### 17일 제5기 청소년의회 마무리...정책 발표, 수료식 진행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 스포츠클럽 활성화...여수시 청소년의원 제안**

전시은 여수넷통뉴스 기자

### 청단 기관기업별 종목 미확정

**대전시, 11개 스포츠팀 청단한다...기업·자치구·대학 참여**

이현재 중도일보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전 KPGA 직원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수영' 황선우, 항저우AG '주목해야 할' 선수 뽑혀... 한국 선수 '유일'

한국 수영 대표팀 황선우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19일(한국시각) 올림픽 닷컴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10인 명단을 공개했다. 황선우는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주목해야 할 선수에 포함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황선우는 자유형 100m와 200m 계영 800m에 출전한다. 이 중 자유형 200m와 계영 800m에서 금메달 전망이 밝다.

올림픽 닷컴은 자유형 100m에서도 황선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올림픽 닷컴은 주목해야 할 경기로 황선우와 중국의 판진러의 자유형 100m와 200m 대결을 꼽았다.

현재 자유형 100m 아시아 기록은 47초22로 판진러가 보유하고 있다. 직전 아시아 기록 보유자가 47초56을 기록한 황선우였다.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은 주목해야 할 선수 10인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0인 안에 들어간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르심의 라이벌로 꼽혔다.

올림픽 닷컴은 "두 선수가 올해 기록한 개인 최고 기록도 접전이다"면서 "바르심의 올해 최고 기록은 2m36, 우상혁은 2m35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우상혁은 지난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2m35를 뛰어넘어 정상에 올랐다.

바르심은 지난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항저우 대회에서 9년 만에 아시안게임 제패에 도전한다.

# '성범죄 선수 부실관리' 광주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종합)

소속 선수들의 잇단 성범죄와 부실 관리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열린다.

북구의회는 18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이의 없이 원안 가결했다. 북구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검도부 대상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북구는 검도부 고참급 선수 A씨의 성범죄를 1년 넘게 몰라 부실 관리 책임이 일었다.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른 북구는 재임용했고, 선고 재판 직전 A씨가 낸 의원면직(사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혈세로 퇴직금 1850여만 원까지 지급했다.

이후 북구는 지난달 11일 법원이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에야 인지했다. 퇴직금 지급 절차가 끝난 지 일주일 뒤에야 소속 선수의 중대 비위를 안 것이다.

이를 계기로 펼쳐진 북구 특정 감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현직 선수 B씨의 성범죄도 드러났다. B씨는 검도부 입단 직후였던 지난 2021년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2년 넘게 숨긴 B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과 무단 결근(3일)을 일삼다 돌연 사직을 신청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북구는 43만 구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11일 북구 검도부 운영위원회에서는 A·B씨 선수에 대한 해임 징계가 내려지는 등 쇄신 대책을 내놨다. 감독·코치 대상 징계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감사에서 드러난 성범죄 선수 훈련 일지 허위 보고, 운영위원회 구성 조례 위반 등은 정확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혹이 여전히 무성하다.

이날 꾸려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두 달 간 검도부 운영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다. 선수 성범죄 묵인 또는 은폐, 재임용 평가 부실, 북구청 관리·감독 체계 허점 등 추가 의혹도 규명에 나선다.

특위는 의원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에는 최기영 의원, 부위원장은 김건안 의원이 맡는다. 한양임·전미용·김귀성·정상용·손혜진 의원이 조사 활동에 참여한다.

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북구청 검도부 관리·감독 부서 등에 오는 26일까지 관련 자료 총 27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요구 자료에는 ▲검도부 선수단 임용·퇴직·해임 자료(재임용 심사·운영위 위촉 내역 등) ▲검도부 운영 예산(인건비·훈련비·여비 등) ▲선수단 복무 관련 자료(훈련일지·훈련계획서·징계 및 범죄 경력 조회 내역) 등이 포함됐다.

이후 특위는 증인 출석 요구, 현장 조사, 질의응답 등 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를 오는 11월 20일 제29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최기영 특위위원장은 "검도부는 지난 2018년 허위 전지훈련 등이 드러나 행정사무조사의 당사자였다. 최근에는 선수들의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났고 북구는 이를 몰라 주민의 아까운 혈세로 퇴직금까지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주민과 했던 약속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북구청 관리·감독 시스템은 잘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다. 심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 스포츠클럽 활성화... 여수시 청소년의원 제안

8일 출범한 제5기 여수시 청소년의회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기 청소년의원들이 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분 자유발언 2건이 진행됐다. 배지우(진남여중2)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으며, 장아경(성산초6)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갑질로 인한 교사 인권 침해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원안가결 처리했다.

초등부인 제1상임위원회는 △여수시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진학 교육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환경개선 플로깅 페스티벌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운영 정책안을 제안했다.

중등부인 제2상임위원회는 △여수시 동별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민 교통권 보장 '쇼미더 교통' 운영 정책안을 제안했다.

김영규 의장은 발표를 듣고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다"라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실제로 정책화해 여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과정을 수료한 청소년의원 18명에 대한 수료식이 이어졌다.

활동기간 중 청소년의회를 이끈 김윤지(여수여중2) 의장, 정효선(진남여중2) 부의장, 김효정(웅천초6) 제1상임위원장, 정유림(여천중3) 제2상임위원장은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의원, 시의원, 학교지원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대전시, 11개 스포츠팀 창단한다... 기업 자치구 대학 참여

대전시가 자치구와 지역 기업, 대학교와 함께 신규 11개 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한다.

대전시는 1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 계룡건설, 우송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전시체육회와 대전 전문체육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지난 2월 시·구협력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구 구청장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육성에 뜻을 모으고 지역 기업과 대학까지 운동부 창단에 공감하면서 후속 절차로 진행했다.

신규 운동경기부는 대전시 1개팀, 자치구 4개팀, 시체육회 1개팀, 대학 4개팀, 계룡건설 1개팀 등 총 11개 팀이다. 창단 종목 등 세부사항은 협의 중으로 2024년 1월 창단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대전에 있던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는 11개 기관(단체) 21종목, 32개 팀이고, 대학은 7개교 25개팀이다. 이중 대전시가 7개 종목, 9개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치구에서는 유성구가 유일하게 스포츠 팀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지역의 많은 우수한 학생 선수들을 연계 육성할 수 있는 실업팀이 없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지역 전문체육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국체전 하위권에 머물러왔으며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스포츠팀 창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대전시는 운동경기부를 창단, 운영하는 자치구와 기업, 대학 등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팀 창단, 우수선수 영입 및 발굴·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건전한 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문체육 육성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동시에 전문체육도 함께 발전시켜 대전을 일류 체육도시로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전 KPGA 직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성 부하 직원들의 귀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KPGA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정연주 판사)는 1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지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성추행 방지 교육을 포함한 회사 내 인사 관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근무한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후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2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은 고소인 9명 외에 추행당했으나 고소에는 동참하지 않은 4명까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서 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성이라 하더라도 엉덩이와 귀를 만지는 행동은 서로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추행이 이뤄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무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PGA도 지난해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현재 A씨는 KPGA에서 퇴사한 상태다.

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스포츠 단체의 조직 문화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협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권이 신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간 스포츠 소식

ATP와 WTA 조직 통합 논의 시작 "4대 대회 포함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것"

[https://www.tennis.co.kr/tkboard/tkboard\\_view.php?seq\\_no=34994&category=global](https://www.tennis.co.kr/tkboard/tkboard_view.php?seq_no=34994&category=global)

"나도 '미투'다"...이다영, 인권위에 김연경 제소 예고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15000402>

[경인 WIDE] 1천여명 인식개선 효과... '체육 인권 천리길' 한걸음 땀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917010003167>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http://www.stoo.com/article.php?aid=89095198619>

[단독] 동의대 축구부 감독, 장학금과 학부모 회비 임의 사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중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9171438003&sec\\_id=5201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9171438003&sec_id=520101&pt=nv)

[기자수첩] e스포츠, 공정성 갖추고 지역연고제 도입해야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27>

'스승과 제자가 한 팀으로 뭉친다' SH스포츠에이전시&서울시 교육청, 12월 1일 화합의 축구 대회 개최

<https://mksports.co.kr/view/2023/691565>

이름 바꿔 아마리그 뿔 프로선수 퇴출... "경기력 유지하려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9028700007?input=1195m>

레슬링 자유형, '파리 티켓' 걸린 세계선수권서 전원 1회전 탈락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9052500007?input=1195m>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